

유다서 개관

1. 개요

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위치한 25 절의 짧은 서신입니다. 이 편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한 경고와, 믿음의 순결을 지키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. 소돔과 고모라, 가인의 길, 발람의 오류, 고라의 패역 등 구약의 전례들을 차용해 교훈을 줍니다.

2. 저작 연대

- 대략 AD 65~80 년경,
 - 베드로후서와 유사한 시기이자, 교회 안팎으로 거짓 교훈이 퍼지던 혼란기.
-

3. 저자

-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 하나인 유다(야고보의 형제, 마 13:55 참조).
 - 자신을 “예수 그리스도의 종, 야고보의 형제 유다”라 밝히며 겸손하게 사도적 권위보다는 종의 위치에서 말합니다.
-

4. 기록 목적

-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경고하고 드러내며,
 - 믿음의 진리를 굳게 지킬 것을 요청하며,
 -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.
-

5. 단락 구분

구분	내용
1-2절	인사와 축복
3-4절	믿음을 위한 싸움의 요청
5-16절	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예시
17-23절	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구별된 삶
24-25절	영광송으로 마무리

6. 중심 메시지

“사랑하는 자들아... 단번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.” (3 절)

유다서는 오늘날의 영적 혼탁과 교리의 상대주의에 맞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. 믿음은 감정이 아닌, 하나님이 주신 유일무이한 진리이며, 그 믿음을 위하여 성도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할 군사입니다.

7. 신학적 이슈

①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

-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,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(4 절). 이는 율법 폐기론, 성적 타락, 삼위일체 부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② 외경적 전승의 사용

- 유다는 **에녹서, 모세 시신에 관한 유대 전승** 등 성경 외 문헌을 인용합니다(9 절, 14 절). 이는 해당 내용이 진리라는 의미라기보다는, 당시 독자들에게 익숙한 **예화로 경각심을 주기 위함**입니다.

③ 종말론적 경고와 보존의 약속

- 악한 자들에 대한 **하나님의 심판**, 그러나 믿는 자들에 대한 **하나님의 보존과 능력**이 함께 강조됩니다(21, 24 절).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유다서 해석

① 믿음의 객관성과 종말론적 경계

- 개혁주의는 믿음의 내용(교리적 진리)을 중시합니다. 유다서는 이 믿음이 **단번에 주어진 계시적 진리**로서 시대마다 보존되고 전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.

② 거짓 교사에 대한 엄중한 교회 규율

-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는 철저히 경계되어야 합니다. 이는 **교회권징과 목회적 분별의 중요성**을 뒷받침합니다.

③ 하나님의 보존 사역

- 유다서는 “**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세우실 주님**”(24 절)을 고백합니다. 이는 **성도의 견인 교리**,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개혁주의 구원론과 일치합니다.